◈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우리교회의 국내 전도 현황

농어촌교회, 특수전도지역 등 70여개처

각교구 전도회 단위로 지원하고 있어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 당시부터 안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에, 밖으로는 전도활동에 힘써 왔다. 특히 시내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여 자립할 때가지 도와 주는 식의 전도활동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졌다.

1956년에 청년회에서 돈암동에 성암교회를, 1958년 여전도회에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앙교회를, 1962년에는 남전도회가 정릉동에 동암교회 등을 세워 나가며 도와왔고 그후로도 끊임없이 국내 전도에 힘써왔다. 또한 농어촌 지역 교회에 대한 지원 등도 활발하게 실시했다. 그러던서 농어촌교회 지원은 남녀전도회의 몫으로 돌아갔고 남녀전도회원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지원교회에 가서 그들을 도와나갔다. 남녀전도회가 한 개로 온 교인이 집중되어 있을 때도 남녀전도회의 전도활동이 교회의 중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전도 활동을 지켜 보고 그 힘찼은 전 교인이 모두가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전도회가 각 교구에 7개씩, 총 161개 전도회가 전도회별로 활동하게 되자 농어촌교회 지원 및 전도 활동이 교회적 차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교구의 한 전도회의 활동이 되어 버려, 우리교회는 농어촌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교회가 하나되어 농어촌교회를 돕던 때하고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다. 각 교구의 전도회에서, 또한 한두 전도회가 연합하여 농어촌교회나 특수 전도를 돕고 있는 것이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전도위원회 산하에 전도부를 두어 지원해야 할 교회를 답사하고 선정하여 각 교구 전도회에 할당하고 있다.

1. 농어촌 교회

	교회명	노회	교역자	주소	지원처
1	갈전교회	강 동	오치영 목사	강원 삼척군 하장면 갈전리 212	1-1 바울, 베드로, 요한
2	서머나교회	북전주	김순영 전도사	충남 논산 양촌면 신리2구 71	1-2 바울, 베드로, 요한
3	서산할렐루야	충 남	문재종 목사	충남 서산 읍내동 (대림상가)	1-1 한나, 에스더
4	우정교회	시수원	이태곤 목사	경기 화성군 우정면 화산5리	1-2 한나, 에스더
5	미산교회	강 동	김학근 목사	강원 평창 미탄면 율치리	2-1 바울
6	율곡교회	경 서	이홍석 전도사	경북 문경 영순면 율곡리	2-1 베드로
7	신망애교회	수 도	류순근 목사	경기 여주 강천면 도전2리 884	2-2 한나, 에스더
8	시현교회	북강원	배정양 목사	강원 인제 기린면 서1리	2-1 루디아, 마리아
9	전동교회	동대전	조강수 전도사	충남 연기 전동면 상노장 677-1	3-1 바울, 베드로, 요한
10	북쌍교회	강 동	장윤덕 목사	강원 영월 남면 북쌍리	3-2 바울, 베드로, 요한
11	재현교회	수 도	장병기 목사	경기 연천 연천읍 고문2리	3-2 한나, 에스더
12	샛별교회	강 원	이성기 목사	강원 원주 소초면 둔둔리 33	3-2 루디아, 마리아
13	마현교회	강 원	차정삼 목사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 1리	4-2 바울, 베드로, 요한
14	가금교회	한 남	최석주 강도사	충북 중원군 가금면 누암리	4-2 한나, 에스더
15	신월교회	북전주	이진봉 전도사	전북 완주 동상면 신월리	4-2 루디아, 마리아
16	성광교회	충 청	정만호 전도사	충남 청양 대치면 광대리	5-2 바울, 베드로, 요한
17	원봉교회	대 전	서기선 목사	충남 논산군 성동면 원봉리	5-2 한나, 에스더
18	반석교회	강 원	이홍재 목사	강원 원주 반곡동 507	5-2 루디아, 마리아
19	안사교회	경 중	홍영식 전도사	경북 의성 안사면 안사1리	6-1 바울, 베드로, 요한
20	신산교회	경 중	장성동 목사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작2리 762-1	7-2 바울, 베드로, 요한
21	좌석교회	안 동	장기호 전도사	경북 영주 단산면 좌석리	6-1 한나, 에스더
22	통일촌교회	시 울	최병도 목사	경기 파주 군내면 백연리 83	7-1 한나, 에스더
23	신방리제일교회	북경기	김영호 목사	경기 연천 연천읍 사조리 1반 105	8-1 바울, 베드로, 요한
24	서호교회	목 포	이동석 전도사	전남 무안 청계면 시호리 223-12	8-2 바울, 베드로, 요한
25	미산연천교회	북경기	장지훈 목사	경기 연천 미산면 박석리 34	8-2 한나, 에스더
26	천곡교회	강 원	권현도 목사	강원 영월 북면 문곡2리	9-1 바울, 베드로, 요한
27	전원교회	시평양	민규식 목사	강원 춘천 남면 추즉리	9-2 바울, 베드로, 요한
28	동성교회	강 동	김호풍 목사	강원 동해시 이도동 427	10-1 바울, 베드로, 요한
29	용산교회	강 동	이약슬 목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용산1리	10-1 바울, 베드로, 요한
30	금매교회	동대구	이재식 전도사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동	10-2 바울, 베드로, 요한
31	양문교회	강 원	이성철 목사	강원 춘천 신동면 발미1리	10-1 한나, 에스더
32	건지리교회	동시울	양병규 전도사	경기 안성 대덕면 건지리 266-7	10-2 루디아, 마리아
33	학동교회	동서울	김우섭 전도사	경기 광주 초월면 학동리 30	11-2 바울, 베드로, 요한
34	상림교회	동서울	변재문 목사	경기 광주 도천면 사림2리	11-1 한나, 에스더
35	귀여리교회	동서울	최오영 목사	경기 광주 남종 귀여리	11-1 루디아, 마리아
36	태평소망교회	동서울	홍길근 목사	경기 여주 가남면 태평리	11-2 루디아, 마리아
37	상봉교회	수 도	김광태 목사	경기 가평 상면 태봉리 371-1	12-2 루디아, 마리아
38	율치교회	강 동	김봉숙 전도사	강원 영월 북면 마차9리	3-1 루디아, 마리아
39	기곡교회	강 원	이준식 목사	강원 원주 지정면 가곡리 21	2-2 바울, 베드로, 요한
40	새소망교회	중 부	시정수 목사	경기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110-4	직원 상조회
41	화개교회	경 서	서홍도 전도사	경북 상주시 화개동 192	4-1 바울
42	화평교회	목 포	조성장 전도사	전남 무안군 운남면 대리원동 483	7-2 루디아, 바울
43	백화교회	동전주	추형호 전도사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875-5	13-2 한나, 루디아, 마리아
44	지동교회	안 주	남상범 목사	경북 달성군 현풍면 지동2구 812	13-2 바울, 베드로, 에스더
45	농국교회	시평양	김창길 목사	경기 안성군 일죽면 농국리 393	9-2 한나, 에스더
46	은림교회	경 성	김양은 전도사	경북 김천시 감문면 은림2리 596	6-2 바울
47	에반교회	순 천	임동진 전도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70	7-1 바울

2. 군 전도

	군목	소속	지원처
1	김정빙 대령	2군사	4-1 한나, 에스더
2	박병주 소령	57사단	9-1 한나, 에스더
3	김명환 소령	35사단	10-2 한나, 에스더
4	강병제 소령	30사단	9-2 루디아, 마리아
5	김대규 소령	73사단	12-1 루디아, 마리아
6	김병일 대위	비19전지사	1-1 루디아, 마리아
7	조용표 대위	육하교	3-1 한나, 에스더
8	김영길 대위	55사단	5-1 한나, 에스더
9	김성중 대위	5공병여단	6-2 한나, 에스더
10	임동학 대위	15사단	5-1 루디아, 마리아
11	류효근 중령	해군작전사	7-2 한나, 에스더
12	김충헌 대위	해군교육사	11-2 바울
13	조용선 대위	공군16비행단	2-2 루디아, 마리아

3. 특수교회 및 기관

	기관명	교역자	지원처
1	상남농아교회	이영빈 목사	11-2 한나, 에스더
2	광성교회	이웅구 목사	12-2 한나, 에스더, 루디아, 마리아
3	아들의 집	이석정 전도사	7-1 바울, 베드로, 요한
4	결식아동		6-1 루디아, 마리아
5	서초소년감호소		4-1 루디아, 마리아
6	강남경찰서	이진희 목사	12-2 바울, 베드로, 요한
7	서초경찰서	심정덕 목사	4-1 바울, 베드로, 요한
8	대한병원	오병동 목사	8-2 루디아, 마리아
9	보훈병원	황도일 목사	10-1 루디아, 마리아
10	경찰병원	리긍하 목사	11-1 바울, 베드로, 요한

* 이외에도 전도위원회에서는 청년1부와 대학부의 전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수재민을 위해
다음주일에 특별헌금

교회는 지난 주간 기습 폭우로 엄청난 재산 손실과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의 수재민을 위한 특별헌금을 다음 주일(8월 11일) 1, 2, 3, 4부예배 시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두가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교회는 지난 7월 30일에 수재의연금 5천만원을 국민일보에 이미 기탁하였다.

수재민을 도웁시다

이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기습 폭우로 엄청난 재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명의 인명마저 순식간에 잃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정부 당국은 최선을 다하여 피해 복구와 구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모금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접 수 처 : 사무국(교육관 1층)
▶ 모금품목 : 성금 및 생필품(식품 및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단, 의류품은 제외함)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성실한 성도의 기도

(시편 26:1-12)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 역적으로 몰려 도망을 떠난지도 일년 이년 횟수가 거듭 지나갑니다. 어려움이 계속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쉽고, 자기의 처지에 낙심하기도 쉽고, 악한 무리들을 저주하고 칼을 뽑아서 혈기를 낼 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선을 도모하고 책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1. 다윗의 과거가 어떻게 보고됩니까(26:1-4상)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님 이것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구할 때에 효자 노릇한 자식들은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 못된 짓만 하던 자식이 청원하면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과거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교만합니까.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과 책임을 충실히 감당한 후에 갖는 담대와는 다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책임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원서를 냅니다.

(1) 나의 행보가 완전하였습니다

이는 전심으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있는 힘 전부를 쏟아서, 온 몸과 온 영혼 전부를 묶어서 일했습니다. 전심으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겨 놓으면 '이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겠나, 이 일을 하면 내가 이용당하지 않겠나, 이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오겠나, 이익이 오겠나'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공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알아 주고 안 알아 주고 상관없습니다.

(2) 여호와를 의지함에 변동이 없습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위태로운 일을 만나면 겁이 나서 마음이 움직이고 악한 일을 만나면 분한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이 움직이고 누가 유혹을 하면 침을 흘리면서 마음을 움직이기 쉬운데, 다윗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유혹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협박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행하다가 기쁜 일을 만나면 교만해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한 일을 만나면 원망해서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 다윗은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3) 악인과 자리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닐 때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품 안에 안겨서 탈선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일을 만나면 선을 넘어가기 쉽고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고, 가던 걸음이 잘못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탈선하지 않고 진리 위에서 살았습니다. 즉 그는 허망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자란 허탄한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모님 존경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허탄한 사람, 망령된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친구를 바로 사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신있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2. 다윗의 결심이 어떠합니까(26:4하-8)

다윗은 "과거에도 바로 살았사오니 앞으로도 바로 살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과거가 좋고 현재도 좋은데 미래까지 좋게 살 전심을 가졌습니다.

(1)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예배를 가짜로 드리는 것, 자기의 잘못한 것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간사입니다. 하나님께는 바친다고 해놓고 바치지 않고 입에만 언으리고 하고 잘못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하고만 계속해서 교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2) 행악자와는 동석하지 않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땅 위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나는 일을 위해서는 악인 줄 알면서도 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마음을 빼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그에 괘념치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끌려가지도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3)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씻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세련된 옷도 예쁘게 잘 입지만 속을 씻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부터 씻고 손도 씻겠다고 결심합니다. 마음부터 씻고 생활도 깨끗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성전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몸의 건강, 사업의 번성을 원하고, 자손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더 귀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된 다음에 손까지 씻어서 생활이 깨끗해지고 속이 깨끗해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속사람부터 씻고 손도 씻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예배당 나올 때에 먼지 속을 준비하면서 겉옷도 입읍시다.

나옵니다.

3.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어떠합니까(26:9-12)

(1) 나를 특별 취급해 주옵소서

땅 위에는 뇌물 받기를 좋아하고 뇌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의 책임을 벗기 위해 뇌물을 주고 잘못한 일을 옳은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지로 뇌물을 바치라고 해서 살아먹는 사람까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뇌물 주기 좋아하고 뇌물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취급하지 마시고 특별 취급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 보호를 받았습니다. 위태로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 취급만 해주시면 위태로운 것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2)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악한 자 손 못대는 구원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위태로운 일은 역단발은 인격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과거에 조금 고생한 것은 천배 만배의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3) 나의 송축을 받으옵소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주위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활촉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게 위태롭고 몸은 아직 광야에 있어 굶주리고 헐벗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외롭게 혼자서 기도하고 기뻐하는 찬송을 부르지만 머지 않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으며 찬미 부를 것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26편에서 넷 가지를 꼭 배웁시다.

첫째, 부끄럽지 않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고 늠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사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보고서를 바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한 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일을 면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보고서 안 바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서 바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보고서를 바칠 수 있도록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둘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전심으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무슨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했습니다. 일한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 주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셋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은 정직한 사람과만 교제합시다.

넷째, 속사람부터 씻고 손도 씻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예배당 나올 때에 먼지 속을 준비하면서 겉옷도 입읍시다.

다섯째,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만 못한 다윗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사오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사오니' 올바른 결심을 내놓은 다윗입니다. 우리도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몸은 광야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주소를 정합시다.

일곱째, 기도를 믿음으로 한 다음에는 마음에 응답을 받고 평안을 얻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활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96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훈련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

그곳에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김 찬 곤
(목사, 교구위원회, 제3교구 지도)

지금 인도네시아는 정국의 불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팀의 신교여행이 마치는 7월 29일(월)부터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상황의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신교팀은 지난 6월부터 단원들을 모집하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여름성경학교와 신교여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와 연습으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로서 4차의 신교여행이 되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약간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름성경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남은 시간들은 선교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하여 일정을 잡고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팀장으로 세움을 받은 고승균 집사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단원들의 열정적인 준비로 인하여, 출발 2주전부터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약간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7월 22일(월) 단장 박상준장로님과 16명의 단원들은 자카르타를 향하는 KE627기에 몸과 마음을 실었다. 7시간의 비행 끝에 자카르타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은 자카르타의 뜨거운 열기와 한인연합교회 교인들의 뜨거운 사랑의 환영을 받으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인연합교회의 첫밤은 주위의 소란한 환영소리(모슬렘 사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밤새도록 쉬지 않고 외치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은 무엇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는지 밤이 맞도록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물어 보았지만 다 알 수는 없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외침을 자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위한 외침인가 생각하면서 참다운 구원의 생명을 모르는 저들도 저렇게 뜨거운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가 생각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3일(화) 새벽, 사원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덕분에 피곤함도 잊고 새벽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었다. '화평을 이루는 어린이'란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면서 준비해간 일정들을 소개하고 연습하면서 교사강습회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으로 뭉쳐진 열심의 마음이었다. 맡겨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서도 늦지 않고 참석하는 교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전체적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아기부(취학전 부서)와 유초등부로 나누어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아기부에는 오인숙 전도사님, 유초등부에는 송향자 전도사님의 설교와 우리 팀에서 준비해간 인형극, 마임, 손 유희, 이와나게임, 성경퀴즈,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반별장기자랑 등의 특별활동을 1인 3역까지 하면서 열심히 감당하였다. 후기성경학교로서 진행되었는데 우리 단원들과 연합교회 교사들은 일체가 되어서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헌신은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우리 팀의 일원으로 김경칠 장로님을 위시하여 5명의 침술팀들이 성경학교 진행시간과 동일하게 그곳에서 105명의 사람들에게 204회의 침술진료를 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불신자들과 현지인 15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침술팀의 헌신적인 봉사로 인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가교를 남길 수가 있었다.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었다. 그러나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필자가 수요일 밤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동안 피곤했던 몸이 물이 맞지 않았던지 갑자기 아픔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다른 여행지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약할 때에 주님은 강하시다고 하셨기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를 느끼게 하셨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교회학교가 전체로 토요일에 주간학교로 모인다는 것이었다. 오전에는 아기부, 오후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계속하여 모임을 갖는 것이었다. 우리 교역자들은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주간학교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모든 일을 감당함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밖에 없음을 감사하면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일 오전예배를 57번 개척교회인 타만 미니에 있는 와르타 재마트에서 어린이 예배와 장년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전 8시에 드린 어린이 예배는 29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고 우리 팀이 준비한 찬양과 설교로 진행되었고, 장년예배에도 설교와 마임으로 같이 시간을 나누었다. 그들은 작년에 교회가 방화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한 사람이 죽기도 하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모슬렘을 정복하시고도 남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참으로 할 일이 많이 있음을 느끼면서 기도로 돕는 신교사들이 되어야 함을 모두 다짐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성경학교를 돕는 일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지원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만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24년이라는 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측면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곳 교우들을 격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린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교여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함께

지원 교회를 다녀와서

박 광 자
(집사, 에스더5-1지회장)

지원 교회인 봉화성심교회를 방문하기로 김영길 목사님과 약속을 해놓고 나는 몇 날을 걱정으로 지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개설 그곳 성도나 목사님께 실망이나 드리고 오면 어쩌나 해서다.

떠나는 날 아침 교회 앞 마당에서 9시에 출발하기로 임원 및 회원과 약속을 하고 아침 8시40분에 도착해보니, 벌써 여러명이 나와 계셨다. 마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로(5월 7일) 교회 곳곳은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전도위원회 강은원 장로님의 기도와 송향자 전도사님의 잘하고 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출발했다.

실로 오랜만에 교회와 집을 떠나 외곽으로 나왔나 보다. 서울의 공해와 답답함을 떠나 확 트인 도로를 달리면서 5월의 싱그러운 바람과 풀내음으로 잠시 어린 시절 시골의 고향길을 그려보면서 주일학교 시절의 재미있던 장면을 그려보았다. 1시간 30분 거리 달리 톨게이트에 도착하니 김영길 목사님께서 그곳까지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안에 자리한 아담한 교회로 들어가니 벌써 교회 안에는 성도들(군인)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영길 목사님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에스더 회원이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한나, 에스더에서 정성껏 마련한 준비된 위문금과 군전도회(부장 김재명 장로님)에서 사단장에게 드리는 성경, 찬송을 전달한 후 예배를 마쳤다.

푸짐하게 준비된 점심 식사와 준비해간 떡과 과일로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다. 식사 중 보수대 대대장님의 짤막한 간증을 들었다. 이 분도 충현교회에서 보낸 성경, 찬송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다. 지금은 주일학교 부장과 이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가의 군병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쪼록 그날 전달된 성경, 찬송으로 사단장님 이하 그 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마음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목사님 내외분과 자연농원 구경을 갔다. 마침 꽃축제 때라 색깔도 모양도 가지가지의 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비와 오묘하심을 느끼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을 연발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목사님과 아쉬운 작별을 하며 돌아왔다.

오늘도 군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영길 목사님과 봉화성심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린다.

▼ 예배 후 봉화성심교회 장병들과 함께

토 막 소 식

▶ 대학부에서는 오는 8월 9일(금)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한다.

▶ 새가정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윤영탁 목사(장년2부 지도)를 강사로 모시고 '언약으로 맺어진 동역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 전도위원회(위원장 강은원 장로)에서는 지난 7월 22~24일 강원도 인제 시현교회에서 있었던 중·고등부 선교수련회를 계기로 서현교회의 하수도 및 취사시설 공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였다.

▶ 아멘찬양대에서는 오는 8월 8일(목)과 9일(금) 남한강종합수련원에서 하기수련회를 실시한다.

▶ 금년도 해외 단기 신교 훈련의 첫 테이프를 자른 인도네시아 단기선교팀(지도 김찬곤 목사, 대장 박상준 장로)이 지난 7월 22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모든 활동을 마치고 30일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 뒤를 이어 일본팀(지도 정광욱 목사, 대장 김인철 집사)이 지난 8월 1일 사역지를 향해 출국,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으며, 홍콩팀(지도 김희수 목사, 대장 강철형 집사)도 내일(8월 5일) 출국할 예정이다.

▶ 김경진 집사(제5-1교구, 선교위원회 실행위원)가 냉온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기증하였다. 이들은 각각 갈릴리홀 로비와 교역자실에 설치, 사용하게 된다.

▶ 서만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시카고에서 열렸던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하고 지난 8월 1일 일시 귀국하였다.

고등부 여름수련회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생활)

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양수리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불을 우리의 가슴에'라는 주제하에 전 학생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8월 8일(목)~10일(토)
- 장소 : 양수리수양관 (경기도 양평 소재)
- 강사 : 한근수 목사(고등부 지도)

청년2부 여름수련회
성화를 주제로
8월 19일(월), 20일(화)

청년2부 여름수련회가 오는 8월 19일(월), 20일(화) 이틀간 저녁 7시부터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요한복음 17장 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청년2부 여름수련회는 특별히 현재 개혁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이정석 목사를 강사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부분인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성화의 의미와 방법, 거룩이란 무엇이며 성화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교우들의 참석도 환영한다고 한다.

충현 오케스트라 수련회
8월 5일(월)~8일(목), 과천 구세군사관학교에서
대원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악기 레슨 및 연주회도

충현 오케스트라는 여름철을 맞아 8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과천시에 있는 구세군사관학교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이는 대원들의 영적 훈련과 기술적 훈련을 겸해서 하게 되는데 일종의 뮤직캠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참가자에 대한 악기별 레슨이 가능하기에 현재 오케스트라 대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참여하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주일 2, 3부예배 오케스트라는 물론 중·고등부의 오케스트라 대원 및 회망자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의미있는 수련회가 될 것이다.

수련회 기간 중 오케스트라 전체의 연주회도 개최하고 있어 신앙공동체로서의 영적 성장 및 기술적 향상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사는 박경한 목사, 이수철 집사, 장기범 선생, 이귀자 사모, 김정수 교수이다.

수련회의 문의는 이수철 집사(☎ 548-9818)나 최호일 집사(☎ 817-1871, 812-4277)에게 하면 된다.

제10교구, 조영광 어린이에게
300만원 모금 전달

우리 교회가 매주 금요집회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해 온 조영광 어린이를 위하여 제10교구에서는 300여만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조영광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식도에 이상이 있어 생사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전 교인의 끈질긴 기도로 이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른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식도를 제거해내고 앞으로 인공식도를 만들어 넣어야 하는 큰 수술을 앞에 놓고 있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다.

제7교구에서 지원하는
통일촌교회 학생 50명 초청

제7교구(교구장 마성락 장로)에서는 지난 8월 2일(금) 7교구 전도회에서 지원하는 통일촌교회의 초등, 중·고등학생 50여명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를 견학시키고 63빌딩에 가서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다.

통일촌교회는 군인교회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므로 하기 전도활동도 할 수가 없어 그곳의 학생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중, 고등부 선교수련회를 마치고

믿음으로 뭉친 십자가 군병

이 평 화
(고등부 1학년)

우선 이번 선교수련회가 홍보에 어리움이 있어 학생들이 많이 안올 줄 알았는데 22일 출발하는 날 교회에 늦게 도착해 보니 예상 외로 30여명이나 와 있었다. 김창인 목사님은 배다니홈에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격려해 주시며 승리하고 오라고 출발기도를 해 주신 후 손을 흔들어 주셨다. 멋있는 노목사님과 교회를 뒤로 한 채 처음 목적지인 홍천 제일농장으로 향했다.

도시의 찌든 공해 속에서 숨쉬고 있던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도착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돼 개회예배 후에 개최된 전도집회는 다음날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전도집회에 나가기 전에 찬양연습을 한 후 원통이라는 곳으로 출발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 앞에서 노방전도와 찬양집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원통터미널에서 노방전도를 하다가 한 아주머니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지만 '십자가 군병'이라는 믿음 아래 불평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전도지 배포팀과 찬양팀으로 나누어 시작했는데, 언제 쫓겨난 양 우리의 찬양소리는 더욱 힘차게 하늘 높이 퍼졌고 열기도 뜨거워졌다. 찬양전도 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찜통 같은 더위에는 그것처럼 맛있는 게 있을까. 아이스크림 파시는 아저씨는 어제밤 꿈이 좋았다며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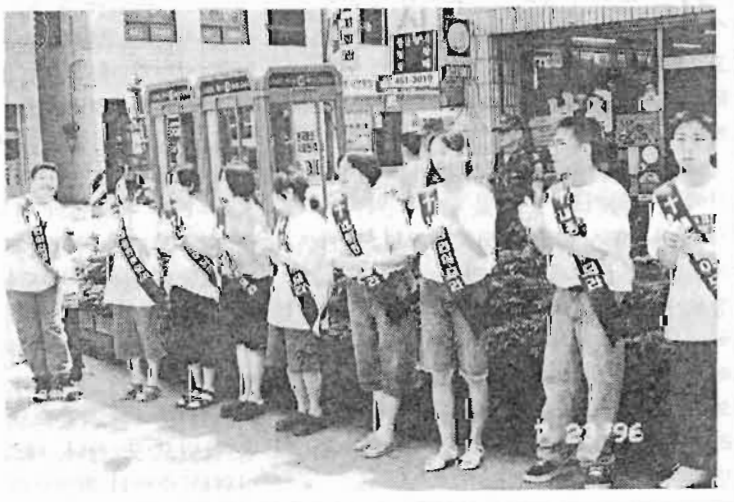
우리는 다시 장수대로 출발 준비를 시두르는데 우리의 찬양전도 모습을 지켜 보시던 어떤 분이 너무 대견하고 수고한다며 박카스 4통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리는 너무 피곤한 탓인지 차 안에서 모두 골아떨어졌는데 기사 집사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세번째 목적지인 장수대로 데려다 주었다.우선 맛있는 점심을 먹고(야외에서 먹는 그 꿀맛을 어떻게 표현하랴) 장수대 다리에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다리가 흔들거렸지만 그곳에서 떨어져 죽어도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했다. 결국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고 멀리에서 우리의 찬양집회 모습을 보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는 멋있는 분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증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집회 후에 잠시 물놀이를 가졌는데 우리의 대장 김영길 선생님을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빠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서현교회를 향해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악산의 정경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서현교회는 내가 여태까지 야외로 가보았던 숙소 중에 가장 깨끗한 곳이었다. 그곳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노인정을 숙소로 빌려 놓으셨다.

베옥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저녁에 가진 부흥회에서 한 명도 졸지 않았다. 한근수 목사님의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에 어떻게 한 명도 졸지 않았는지….

밤 늦게 자연 속에서의 캠프파이어가 시작되었다. 초롱초롱한 별과 달과 산벌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속초해수욕장으로 전도집회를 나갔다. 많은 인파와 파도소리에 우리의 목소리가 부족했지만 마지막 전도집회라 온 힘을 다해 찬양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전도집회를 마친 후 서울을 향해 떠나는 차 안에서는 아쉬움에선지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4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선교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충현기도원이 아닌, 매일 장소를 옮겨가며 노방전도를 한 이번 선교수련회가 가장 뜻깊고 좋았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뜻깊은 선교수련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출발하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2박 3일 동안 비 한방울 없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셔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선교수련회를 기대해 본다.

▼ 원통시내에서 찬양을 부르며 전도하는 모습